

제 1 회 세계인문학포럼

대한민국 부산

2011 년 11 월 24-26 일

<부산 선언>

21 세기 ‘뉴 휴머니즘’을 향하여

21 세기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 과제들을 깊이 성찰하기 위해 2011 년 11 월 24 일부터 26 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 1 회 세계인문학 포럼에 참가한 우리 인문학자·예술가·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신념 체계와 이데올로기, 충성심, 정체성들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 경제적·기술적·생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요소들의 복합 작용에서 비롯되는 사회 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금보다 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비전과 통찰력에 대한 정책입안자, 미디어, 일반대중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문학이 개인과 사회의 자기이해를 형성시키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때때로 인문학의 ‘위기’로 표현되는 현재 상황이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분열적인 세계화와 환경 위기, 그리고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휴머니즘의 의미를 다시 성찰할 필요성을 주목하고,

평화의 방벽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세워져야 하며 평화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에 영감을 받고,

철학적 분석 및 성찰이 유네스코의 핵심 사명인 평화의 건설 및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유네스코 ‘철학에 대한 모든 부문간 전략’을 고려하고,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유네스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한국연구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1 11 월 26 일 제 1 회 세계인문학포럼 폐막식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고조되는 시대에 인문학이 인간과 사회의 가치 및 그 재정립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2. 우리는 21 세기가 당면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연 속 인간의 위상과 생태계 및 생명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존중하는 뉴 휴머니즘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인문학자, 예술가, 사상가, 혁신가들의 다원적, 비판적, 포용적 토대에 기초한 분석과 대화,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3. 우리는 학자, 예술가, 지식인으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연구체제, 미디어,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학문간,

국가간, 언어간, 문화간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협력하는, 다원적, 포용적, 개방적 성찰의 원칙을 촉진하고 지지한다.

4. 우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보편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제 1 회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각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보편적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균형 없이는 다양한 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없으며, 하나의 세계공동체로서는 보편가치를 위한 뉴 휴머니즘의 토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5. 우리는 유네스코가 이번 포럼과 같은 노력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포함한 파트너를 통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지식을 확산함으로써 그 성과를 가시화하며,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유네스코 국가 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인문학포럼을 포함하여 인문학 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유네스코가 인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과 그 성찰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열린 논의와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인문학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마련되어 2012 년 개최될 제 2 회 세계인문학포럼에서 논의될 것을 요구한다.
8. 우리는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당면 과제에 대처하는 현대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의 적절한 연결 고리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9. 우리는 인문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문학자, 정책입안자, 활동가, 미디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0. 우리는 지금보다 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현대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모여 인문학적 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인문학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